

# 화성

HCF MAGAZINE

vol. 62

2024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화분



## Focus

화성에서 뭐하고 놀까?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봄부터 초여름까지

## Column

초연결사회에서의 문화와 삶  
백남준아트센터 초연결 공유의 플랫폼

## Walk

화성의 카페를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초록으로 찬란하거나 빛으로 이채로운

화성시 예술인과 함께하는 화분 표지



김효정, Kim Hyojung  
Overflowing 23.7(흘러넘치는 마음 23.7)  
116,8 x 91cm | Mixed media on canvas | 2023

작가노트

안정되어 보이는 일상에 모두 담지 못하는 나의 다양한 감정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잡아두고 싶은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멈춰있지 않고 매일마다 움직이고 달라지는 나의 감정을,  
생동하는 식물의 이미지에 투영하여 표현하려 했습니다.

반복적 패턴과 화병들의 형체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반면  
식물은 유동적인 형태로 모양이 변화하고, 자라나고, 때로는 시들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 식물에 빗대어 오롯이 나 자신을 마주하곤 합니다.

진지하고 깊은 감정들의 과잉만을 기록하지 않고,  
순간마다 느껴지고 흘러넘치는 행복감까지 모두 이미지화하여,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그 순간 나의 감정을 함께 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비적인 외면과 내면의 감정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가지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목탄, 섬유, 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작품들은 '내면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인 이미지 그리고 대비되는 밝은 색감을 사용하여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 제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려 합니다

# Culture connect:

# 문화로 연결하다

시민들과 신진예술가들이 새로 유입되고,  
더욱 다양해진 백만 도시 화성의 풍경과 생활,

예술과 시민을 연결하는  
화성시문화재단과 예술가들의 모습을 담다.



## 06 INTRO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김신아  
 편집본부장 김미라  
 편집팀장 유영임  
 기획·편집 원예빈  
 디자인·인쇄 경인M&B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적로 134  
 전화 031-8015-8112  
 팩스 031-8015-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곳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0 THE 담다 문화를 담다

### 12 Focus

화성에서 뭐하고 놀까?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봄부터 초여름까지

### 16 Interview

기업과 예술가를 잇는 '2024 화성메세나'  
 사진전 화성에 살다

### 22 Column

초연결사회에서의 문화와 삶  
 백남준아트센터 초연결 공유의 플랫폼

### 26 Talk

고물가시대의 슬기로운 문화생활

### 30 Live

나빌레라  
 화성시 향토무형문화재 김정아



## 34 THE 가다 그곳을 가다

### 36 Walk

화성의 카페를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초록으로 찬란하거나 빛으로 이채로운

### 40 Archive

이정표, 사라진 갯마을의 표식을 읽다  
 남양읍 장덕리

### 44 Preview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본  
 화성시문화재단의 유형별 기획공연 추천!

### 46 Draw

문화로 잇다 화성을 그리다  
 어반 스케치

### 48 Travel

화성의 캠프닉 명소, 텐트 밖은 '봄'  
 새싹동산 청려수련원, 무봉산자연휴양림

## 52 THE 하다 동행하다

### 54 Hello

화성시문화재단이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지원에 대하여  
 예술지원팀장 김태동

### 58 People

화성인이 전하는 일상,  
 그리고 행복 한 스펀

### 60 List

시니어를 위한 여가 추천 리스트  
 힙한 시니어 여기 모여라  
 시니어 댄스스포츠 <K댄스>

### 64 Culture & Issue

5~7월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 70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 독자 만족도 조사

### 72 Place

배포처 및 구독 안내



계절의 문턱을 넘어서는  
불과 며칠 사이,  
마침맞게도 가장 화사하고  
해사한 벚꽃이 공원과  
천변 곳곳에서  
만개했습니다.





수원대학교



화산체육공원



발안천

## 2024년 어그로본날 화성의 풍경

신리천 카페거리리를 수놓은 벚꽃들의 향연에 봄이 왔음을 실감한 게  
 옛그제 같은데. 어느새 찾아온 벚꽃 엔딩에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런 나 의 마음 을 눈치챈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벚꽃 엔딩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니까 알람이야”라구요.

# THE 담다

문화를 담다

12

## Focus

화성에서 뭐하고 놀까?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봄부터 초여름까지

16

## Interview

기업과 예술가를 잇는 '2024 화성메세나'  
사진전 화성에 살다

22

## Column

초연결사회에서의 문화와 삶  
백남준아트센터 초연결 공유의 플랫폼

26

## Talk

고물가시대의 슬기로운 문화생활

30

## Live

나빌레라  
화성시 향토무형문화재 김정아



#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화성에서 뭐하고 놀까?

봄이 되면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울창해진 나무들 사이로 각양각색의 꽃들이 어우러진 지금, 자연이 선물하는 청량한 풀 내음과 함께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동화 같은 숲이 만들어진다. 매년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하는 반석산 피크닉에서는 돛자리를 깔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잔디석과 보다 가까이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일반 객석 두 가지 형태로 동시 운영된다. 취향에 따라 관람이 가능하며, 야외공연의 다양한 이벤트 또한 만나볼 수 있다. 자연과 음악이 공존하는 숲속 공연장에서, 올해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반석산 피크닉'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과 이 봄을 만끽해 보자.

# 봄부터 초여름까지

## 자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반석산 피크닉



### 숲속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 반석산 피크닉:Musical in the Forest

2024 반석산 피크닉의 첫 공연. 천정훈 음악감독이 이끄는 The M.C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라이브 연주와 세계적인 뮤지컬 스타 마이클 리를 비롯한 나하나, 임정모 등 신예 뮤지컬 라이징스타들의 협연으로 구성된 뮤지컬 갈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공연장소 |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화성시 노작로 134)  
공연일시 | 2024. 5. 11.(토) 오후 5시  
러닝타임 | 약 80분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티켓가격 | R석 5만 원 / S석 4만 원 / A석 3만 원 / 잔디석 3만 원  
티켓예매 |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1544-1555)  
문의 | 1588-5234

### 초여름의 산들바람과 함께하는 감성 인디 콘서트 반석산 피크닉:Indie Night

화성시를 찾아온 감미로운 싱어송라이터들의 저녁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감성 깊은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오웬과 각기 다른 치즈의 품미처럼 감정의 다양한 형태를 현재에 투영시켜 노래하는 치즈가 초여름 저녁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장소 | 동탄북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경기 화성시 노작로 134)  
공연일시 | 2024. 6. 8.(토) 오후 7시  
러닝타임 | 약 90분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티켓가격 | R석 5만 원 / S석 4만 원 / A석 3만 원 / 잔디석 3만 원  
티켓예매 |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1544-1555)  
문의 | 1588-5234





##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세계 異世界로 떠나는 미디어 전시



###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빛의 향연 <빛의 숲 - The Forest of Light>

빛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공간에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실물악기인 그랜드피아노와 첼로에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여 오감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연출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션 맵핑, 터치미디어 액자 작품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아트를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ED 무드등 만들기, 스크래치 컬러링 등 다양한 전시 연계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된다.

장 소 | 라크몽 B동 3층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화성시 동탄대로 5길 21)  
일 시 | 2024. 4. 5.(금) ~ 5. 18.(토) (매주 일~월요일 공휴일 휴관)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티켓가격 | 무료, 사전예매 없이 관람 가능  
문의 | 031-378-5026



###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바다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

2021-2023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빛나는 화성 뱃놀이 축제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화성시 전곡항에서 매년 열리며, 해양레저 체험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일링 보트, 파워보트, 고급 요트 중 마음에 드는 보트를 골라 탑승해 볼 수 있는 뱃놀이 체험을 시작으로 바다낚시 체험, 어촌체험을 비롯한 수상 레저 체험까지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무대에서는 노라조의 화려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축제의 두 번째 날 밤에는 초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박명수와 함께하는 EDM Night이 준비되어 있어 기대를 모은다. 또한 축제 기간 내내 지역의 특산물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한 부스들도 만나볼 수 있다. 뜨거운 여름을 달콤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여름을 만나보자.

장 소 | 화성시 전곡항 일원  
일 시 | 2024. 5. 31.(금) ~ 6. 2.(일) (3일간)  
프로그램 | 요·보트 승선체험, 바람의 사신단, 풍류단의 향해, 천해유람단, EDM Night 등  
문의 | 031-290-4689



##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이 기다리는 축제

### 고흐, 모네, 마티스를 미디어전시로 거장의 팔레트 빛을 만나다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사랑받는 고흐, 모네, 마티스의 대표 작품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로 만나볼 수 있다. 거장의 작품과 삶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장 소 | 동탄복합문화센터 아트스페이스, 아트스퀘어  
일 시 | 2024. 4. 2.(화) ~ 5. 19.(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관)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티켓가격 | 무료, 사전예매 없이 관람 가능  
문의 | 031-290-4603



기업과 예술가를 잇는 '2024 화성메세나'

## 사진전 화성에 살다

지난 3월 '2024 화성 메세나 1호'로 선정된 이창환 작가의 '화성에 살다' 사진전이 열렸다. '화성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궁금증을 안고 이창환 작가를 만나 보았다.

글. 손완주 사진. 배호성



이번에 2024 화성 메세나 지원금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사진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관람객들이 제 사진을 보신 후에 여기가 어디냐면서 매항리, 남양호에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 사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화성 지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 새벽 안개 속 남양호가 전해준 힐링

3월 동탄문화센터 동탄아트스퀘어에서 진행된 이창환 작가의 사진전 '화성에 살다'는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깊게 쳐다보면, 비로소 아름다운 순간들이 수없이 표출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전시였다. '화성에 살다'는 남양호, 노hari 홍연, 매항리 풍경을 담은 사진전이다. 이창환 작가와 화성과의 인연은 22년 전 서울에 살던 그가 화성시 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살던 제가 화성으로 이사를 온 건 떠밀려 왔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희망을 품고 온 것도 아니고,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닌 이곳은 그저 상황이 좋아지면 떠나야 하는 그런 곳이었지요." 살다 보면 그렇게 한 템포 쉬어가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어떻게 호흡을 정리하고 시선을 가다듬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의 행보가 결정된다. 이창환 작가의 선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상실감, 공허함 속에서 20년 전 기억에 묻어둔 사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기를 들고 새벽에 남양호에 가보았습니다. 그날 새벽의 남양호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 사이로 동이 트고 새가 날아오르는 침묵의 소리가 저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창환 작가는 남양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남양호가 전해주는 힐링의 이야기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사진에 담았다. 그러는 사이 가슴 속의 상실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 매항리 갯벌이 보여주는 치유의 풍경

"사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화성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러다 노hari 동방저수지에 있는 홍연도 만나게 됐죠. 여름에 82번 국도를 타고 가는데, 동방저수지 쪽에 붉은 홍연이 보이더라고요. 가서 보니 엄청 큰 군락지가 있었고, 저수지를 가득 채운 붉은 홍연이 초록색 잎들과 함께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돌보는 사람 없이,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연꽃 군락지인 그곳엔 안타깝게도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었다. 찾아주는 이, 보아주는 이가 없어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 모습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화려한 꽃을 피우는 홍연을 보며 이창환 작가는 시간 속에서 있는 힘껏 살아가는 자연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사진에



담았다. 시간의 풍경 속에서 찬란하게 피었다가 쓸쓸하게 지고, 다시 찬란하게 피어나는 흥연의 이야기를...

매항리 갯벌의 모습도 그렇게 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연처럼 만난 곳이었다. 갯벌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는 그 위를 40분 이상 걸어 들어가야 한다. 갯벌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바닷속 아무 것도 없는 진공상태 그대로인 갯벌을 만나게 된다. 그 텅 빈 갯벌을 걸으며 이창환 작가는 치유를 느꼈다.

“남항리 갯벌은 사진을 찍는 순간보다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 더 좋기도 해요. 갯벌의 길들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바다가 숨겨왔던 말들을 걸어주는 것 같거든요. 남항리 갯벌에서는 조심스럽기도 해요. 5월이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10월이면 낙지를 잡고, 겨울이면 굴을 캐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그곳은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일텐데, 거기에 사진기를 들고 오는 사람이 그분들 눈에는 이방인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창환 작가의 시선은 갯벌을 딛고 살아가야만 하는 고단함, 그럼에도 갯벌을 떠나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이들. 그곳으로 향해 있으며, 그 둘은 마치 하나의 피사체처럼 서로 연결된 모습이다. 마치 우리의 일상이 투영된 듯 그렇게.

### 2024 화성 메세나 1호로 화성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집중할 것

화성 곳곳을 카메라에 담아온 세월만 십수 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창환 작가는 화성에서 꼭 찬 충만함을 느낀다. 사진을 통해 화성에 관심이 생겼고, 이제는 화성을 떠나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화성에 살다’ 사진전은 시리즈로 앞으로도 두 번 정도 더 전시할 예정으로, 다음 공평 풍경과 발안 풍경을 사진에 담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 이후엔 평생을 화성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사진으로 담는 작업도 해볼 계획이다.

이처럼 화성과 관련된 연작을 기획 중인 이창환 작가에게 2024 화성 메세나 1호로 선정된 것은 참으로 기운이 나는 일이다. “2024 화성 메세나 1호로 선정되어 ㈜하스피아, 다가치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화성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개인전을 하고 싶어하는데, 비용 부담으로 제약이 큼니다. 이번에 2024 화성 메세나 지원금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크게 사진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관람객들이 제 사진을 보신 후, 여기가 어디냐면서 매항리, 남양호에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 사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화성 지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산다. 그러나 문 앞의 풍경도 애정을 갖고 깊게 쳐다보면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창환 작가의 사진전 ‘화성에 살다’를 보며 떠올릴 수 있었다. 이 봄, 유명한 명소를 찾아 꽃구경 가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사는 동네 한편에 피어있는 봄꽃들 속에서 저마다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 그 첫 번째 동행, (주)하스피아

## (주)하스피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하스피아 김성한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은 고주파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암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컨설팅, 그리고 반려견 사업과 호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성장 중인 기업입니다. 이러한 우리 기업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따뜻한 온기로 건강한 세상을'이라는 기업 슬로건으로 표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화성 메세나 1호 매칭 기업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보유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술가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고충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메세나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이창환 작가님과 같이 화성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감히 제가 예술가분들께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과 예술의 연결이라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세나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주)하스피아가 생각하는 기업과 예술의 가장 모범적인 또 다른 상생 방법이 있다면?

기업의 홍보를 위한 1회성 지원이나 보여주기식의 활동에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수단이며 목적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상생 모델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 대표님의 많은 관심과 역할을 기대하면서 향후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이라면, 사업의 성장과 성공이 우선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는 기업의 성공이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창환 작가님을 비롯한 우리 화성시 관내 예술가분들과 더욱 적극적인 스킨십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주변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협업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하스피아 김성한 대표

# 그 두 번째 동행, 다가치사는 사회적 협동조합

##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이 같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다가치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의 대표이자 임상심리사인 이희정(이하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이자 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박인식(이하 박)입니다.

##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저희 조합은 교육부가 인가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부터 창의적 교육과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화성 메세나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 이창환 작가님은 저희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예술가로서, 재단에서 선정한 화성 메세나 1호 작가님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하는 입장에서 영화는 '소설'이며, 사진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닳았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닳은 구석이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 두 분이 생각하시는 문화와 메세나란?

이 이사님과 저 또한 같은 문화소비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메세나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한 소중한 투자방법이자 올바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예술과 산업 간 협업 시도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문화와 예술에는 순수혈통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 소견인데요. 정체된 예술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단어로는 하이브리드(hybrid)가 이에 부합하겠네요.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과 예술가 간의 협업은 미래 문화산업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화성의 문화적 토대와 가능성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박 우리 화성시는 지리적 특성으로나 역사적 특성으로나 상당히 밀도 높은 문화적 배경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상당히 젊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화성시처럼 저희 조합 또한 균형감 넘치는 기업으로서 향후 10년이 기대 되는 조합으로 성장시켜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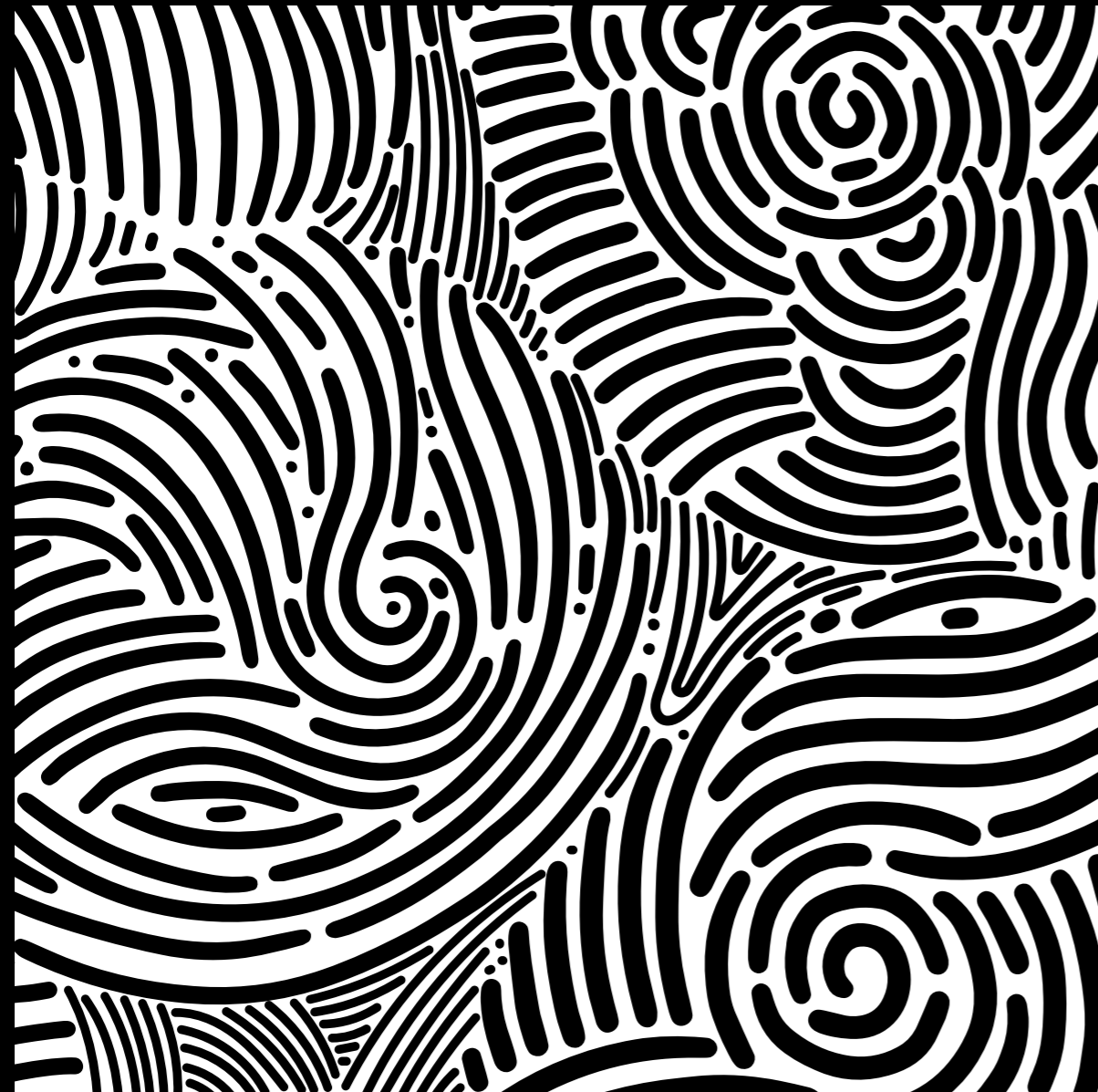
좌) 이희정 대표  
우) 박인식 이사

# 초연결사회에서의 문화와 삶

백남준아트센터 초연결 공유의 플랫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매체를 이용해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소통한다. 이는 단순히 사람 간의 연결을 넘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으로써, 다시 말하면 자연 생태, 사회 현상,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상호작용하는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우주의 한 행성인 지구는 물, 공기, 땅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의 기술을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이다. 2년 전 종식하였던 코로나 19는 전 지구를 감염의 공포로 떨게 했고, 다시 한번 생태계가 공동 운명임을 상기시켰다.

한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의 『제4의 물결』에서 전망한 미래의 ‘디지털 기술’, ‘미디어 영상 장치’, ‘인터넷 특화’ 등 기술의 공유는 이미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바야흐로 사람과 사물이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결합된 지금의 초연결 사회는 불과 10여 년 전 제기된 정보통신기술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순식간에 우리 삶에 스며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은 인간뿐 아니라 사물과 기술 등 비인간 존재들이 모두 ‘행위자(actor)’로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적으로 존재함을 인식시킨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는 예술에 대한 형식과 소통에 대한 변화로 이어진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 Chain), NFT(Non-Fungible Tokens)과 같은 기술이 예술의 형식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소통 방식이 보편화되는 것은 관계적 상호작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예술 형식과 소통을 백남준은 이미 한 세기 전에 보여주었다.

세계의 연결과 소통을 시도했던 예술가 백남준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4년 1월 1일 인공위성(Artificial Satellite)을 통해 뉴욕과 파리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생방송 《굿모닝미스터오웰》을 기획하였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소련에서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진 이래 지금까지 과학, 통신, 군사, 기상 목적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예술적으로는 백남준이 처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가 1992년 발사되기 4년 전, 백남준은 뉴욕 공영방송 WNET과 함께 전 세계로 송출될 위성 우주쇼를 선보인 것이다. 이 같은 위성예술쇼를 하게 된 것은 1948년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쓴 소설 『1984』와 관계가 있다. 백남준은 기술이 감시와 공포의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만들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 간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오웰, 당신은 반만 맞았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 1984

이 위성예술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위적인 음악가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 “모든 사람이 예술가다”라고 주장한 요셉 보이스(Josep Beuys, 1921-1986), 백남준과 함께 공연을 해온 샬롯 무어맨(Charlotte Moorman, 1933-1991), 최초로 뮤직 비디오를 만들었던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 1947-)과 같은 예술가들과 이브 몽탕(Yves Montand, 1921-1991), 오잉고 보잉고(Oingo Boingo, 1979)와 같은 대중 예술가들, 지성적인 대화, 미래의 언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뉴욕과 파리를 오가며 전세계에 방송되었다. 비록 두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방송이 매끄럽지는 않았으나 전 세계 2천5백만 명이 시청하는 특별한 사건이 되었으며, 백남준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한국 KBS방송이 역사적인 순간을 송출하였는데, 당시 이태행 담당 피디는 전혀 없던 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백남준이라는 예술가를 세계와 문화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의지하게 되었다. 1984년 6월 한국을 떠난 지 34년 만에 귀국한 이래 백남준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국립현대미술관 <다다익선> 설치,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설립, 1995년 광주비엔날레 개최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정신과 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세계 문화의 생생한 현장을 한국과 연결시킨 K-CULTURE로 얘기하는 한류의 원조와 같은 존재였다.

2006년 백남준 서거 이후, 2008년 경기도 용인에는 그의 성(Paik) 알파벳 첫 글자 모양의 몸체를 한 백남준아트센터가 10월 8일 개관하여 백남준이 명명한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미션은 백남준의 예술을 널리 알리는 일과 함께 미래의 백남준을 발굴하고 더 많은 세계와 소통하는 일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예술과 기술로 연결된 함께 하는 미술관'으로써, 더 많은 예술이 실험되고 더 많은 예술이 참여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남준이 도전했던 텔레비전, 비디오, 위성, 레이저의 미디어 실험을 넘어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튜브 등 다양한 기술 매개의 상황을 예술을 통해 드러낸다.



삼손 영, 제단 음악(우유부단한 신자를 위한 예배), 2022



1. 바밍타이거 X 류성실, SARANGHAEYO 아트 라이브, 2024
2. 흥민키, 라이브 방송 중 해킹 당한 BBI, 2024
3. 히토 슈타이얼, 태양의 공장, 2015



1984년 《굿모닝미스터오웰》이 인공위성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고자 했던 당대의 도전적 사건이었다면, 40년이 지난 2024년은 1989년 '월드와이드웹' 이후 인터넷 시대의 초절정을 이루며 방송도 개인이 자유자재로 제작·송출하는 시대이다. 1984년 백남준의 '세계의 연결'을 기념하며 2024년 3월 백남준아트센터는 두 개의 전시 《일어나 2024년이야》와 《빅브라더 블록체인》을 개막하였다. 백남준은 미디어에 대한 강렬한 미션으로 '참여'와 '소통'을 제기해왔는데, 1984년으로부터 40년이 지난 2024년 지금은 '쌍방향 소통'을 넘어선 '다방향 소통'이 가능한 초연결 시대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어나 2024년이야》전은 1984년 백남준이 위성을 활용해 두 도시를 함께 연결하여 소통과 평화의 메시지를 제기한 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의 평화적 연결을 얼터너티브 그룹 바밍타이거와 류성실의 <사랑해요 아트라이브>로 만나게 하고 있다. 《빅브라더 블록체인》전은 1984년의 예술가들의 미래상으로 유튜브 등 가상의 공간에서 소통과 감시를 보여주는 흥민키를 비롯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가짜뉴스와 종교적 기원마저 대리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삼손 영, 게임이 곧 현실인 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히토 슈타이얼의 작업 등을 선보인다. 권희수, 이양희, 상희, 장서영, 휘, 조승호의 작업에서 기술은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자, 지금의 우리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의 예술은 과거의 형식과 향유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어떤 시대의 예술도 당대의 과학과 기술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속도가 붙은 기술 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중에 있다. 때때로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어디인지, 또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을 예술과 마주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이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며, 이제 우주와 연결도 심심치않게 보게 된다.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예술의 형식에 자유를 부여하는 기술과, 예술의 의미를 제기하는 인간의 관계적 사고는 여전히 서로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 고물가 시대의 슬기로운 문화생활

고물가 시대, 할인 받고  
문화생활 즐기자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근교로 여행을 떠나거나 공연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거리에 활기가 넘쳐난다. 하지만 부쩍 오른 물가에 선뜻 지갑을 여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요즘이다. 하지만 문화생활은 일상에 지친 내게 온전한 '쉼'을 주고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삶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로, 보다 슬기롭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글. 이지나 에디터

### “매달 숨만 쉬어도 139만 원 필요해”

신한은행이 4월 17일 공개한 '2024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만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만 13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가 월평균 6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교통·통신비, 월세·관리금·공과금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 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는데, 이중 68.6%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편의점 간편식 등 대체제를 찾았다고 답했다.

먹고 잠을 자는데 필요한 고정지출은 커지고 있지만,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기성세대보다 소득이 적은 20대 근로자 평균 소득은 5년간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귀속 연령별 근로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총급여 기준 20대 이하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453만 원이다. 재작년 최저임금(9,160원) 기준 연봉이 약 2,3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대 이하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이보다 140만 원 많은 데 그쳤던 셈이다.

소득이 낮은 20대들은 소득을 크게 줄이고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금액 역시 가장 취약했다. 1%p 금리 인상에 따른 20대 연간 소비는 약 29만 9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충 된 영화값에 '부담' 그래도 방법은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만 해도 주말 성인 기준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수준이던 영화값은 1만 5,000원으로 경충 뛰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연간 2조 원의 준조세(부담금) 감면을 발표하면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부과금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1만 5,000원의 영화표를 구매하면 500원가량이 경감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다 저렴하게 영화를 즐기려면 '약간의 손품'을 팔아야 한다.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실속을 따지는 '2030세대' 소비트렌드를 반영, 자사 멤버십 고객에 '공짜 영화' 혜택을 제공하거나 영화관 매점 혜택 등을 부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규 멤버십 프로그램 외에도 '반짝 이벤트'를 통해 매점 상품 무료 지급 및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먼저 SKT 이용자면서 통화량이 많은 VIP회원이라면 연 3회 '무료 영화(월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특별관 1만 5,000원 구매 혜택 연 6회, 평일/주말 관람 1+1 연 9회, 영화 관람권(11,000원 이상) 예매 시 최대 4,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요금제 이용자에겐 영화와 커피, 로밍 요금이 50% 할인되고 매달 10, 20, 30일엔 또 다른 혜택이 제공된다. VIP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 텔레콤은 4월 17일 'T데이' 멤버십 가입자가 롯데시네마 영화 티켓(8,500원)을 예매하면 정가 7,000원 상당의 T데이 콤보(오리지널 팝콘 1개+탄산 음료 1개)를 2,000원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U+멤버십'의 혜택 프로그램 '유플투블' 행사를 통해 4월 11일 VVIP 고객에게 유플투블 세트(팝콘 1개+음료 1개)를 무료 증정했으며, VIP 고객에게는 팝콘 1개를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4월 20일에는 1995년생부터 2005년생까지인 '유쓰' 고객에게 메가박스 오리지널 팝콘을 무료 제공했다. KT는 월 1회 롯데시네마 현장에서 매점콤보 결제 시 1,5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영화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연과 미술 전시박물관, 문화재 입장권 등 2,000개가 넘는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 주어진다. 단 모든 영화와 공연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이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미술관에서는 새로운 전시를 시작하기 2~3개월 전에 자체적으로 얼리버드 이벤트를 여는 곳이 많다. 이 기간에는 티켓값을 10~5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단 얼리버드 티켓은 사용기한이 짧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자.

# 문화의 날

# 공짜 영화

시사회 신청을 통해 '공짜 영화'를 즐기는 방법도 있다. 시사회는 신작 영화를 가장 먼저 즐기면서 배우들의 무대인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이기도 하다. 응모한다고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당첨된 사람이 꽤 많은 것을 보면 한 번쯤 노력만한다. 안드로이드에서 '덕스티켓'을 다운로드 하면 첫 화면에 영화 예고편과 이벤트가 뜨는데,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화면 하단에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도 볼 수 있다.

### 새책 할인 구독서비스 인기

책값이 오르면서 새 책을 25% 할인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인기가 높다. '인스타카드 레귤러 멤버십'을 이용하면 구독료 1만 원에 일반도서 35%, 전공책 2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프트콘을 사고파는 '니콘내콘' '팔라고' 등 할인 앱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 3~6%의 추가 할인도 노려볼 수 있다.

소유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e-book'이나 중고거래 앱을 통해 헌책을 구입하는 방법도 늘고 있다. 과거 자동차나 명품에 한정됐던 중고거래는 플랫폼의 다양화로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데, 최근엔 책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4조 원에서 지난 2021년 24조 원으로 6배가량 커졌다. 특히, 지난 2003년 네이버 카페로 시작한 국내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의 거래액은 지난 2017년 2조 1,000억 원에서 2019년 3조 5,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회원 수는 4월 22일 기준 약 1,900만 명이다.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중고나라를 이용하고 있다. 중고책을 알라딘이나 yes24 온라인 앱에서 구입하면 새 책보다 50%가량 싸게 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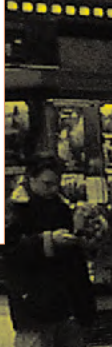
### 박람회 사전등록 할인도 '쏟아'

주말이면 캠핑과 펫 박람회부터 인테리어 박람회, 디지털, 커피, K-골프, 종교 관련 박람회까지 수많은 주제의 박람회가 연중 쉴 새 없이 열린다. 관심 있는 박람회가 있다면 사전 할인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박람회 티켓은 주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만 5,000원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기간'을 공지하는데 이때 구입하면 현장 판매가보다 30~35%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사전 예매의 경우 차수별로 할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1차 사전 예매를 놓치지 말자.

**이지나 에디터** 고물가, 교환율, 고금리 시대에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공유하고 관련 글을 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혜택을 누리고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 구독서비스 인기

# 새책 할인





## 나빌레라 화성시 향토무형문화재 김정아

올해 3월, 화성시는 향토무형문화재 1호로 승무(화성 이동안류)와 함께 이동안 선생의 승무를 계승해온 김정아를 향토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했다. 승무 하면 떠오르는 건 조지훈이 쓴 시구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그리고 나비 같은 몸짓의 우아한 이미지다. 승무는 정말 그런 춤일까. 화성의 재인(才人) 이동안을 원류로 한 '화성 승무'를 두고 가장 전통적이기에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무용가,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김정아를 만났다.

글. 최정순 사진. 지선미

### 이동안 선생의 춤 세계, 그 안내자 김정아

지난 1년여간 화성시의 종목 심사 등 갖은 심의, 실사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이동안류 승무'가 향토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됐다. 그리고 김정아는 향토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한무용협회 화성시지부장, 화성예총 수석부지회장, 그리고 화성재인 이동안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다. 다섯 살에 시작한 김정아의 춤 인생은 57년에 이른다. 그중 화성에 터를 잡고 스승이자 조선의 마지막 춤꾼이었던 이동안 선생의 승무를 계승하고자 분투한 세월이 30년가량이다. 무용단을 만들어 이동안류 승무를 국내외 여러 무대에 소개했으며, 무용을 전공한 이들을 비롯해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안의 춤을 가르쳤다. 또 이동안 선생 일가와 화성시가 모이는 자리를 주선, 2021년 함백산추모공원 내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 모역으로 묘지를 이전하는 일 등을 추진했다. 화성시 향토문화재위원회가 발표한 선정 이유 중 '이동안류 승무의 기량과 전승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는 항목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100만 인구가 특례도시란 목표를 달성한 것 보세요. 화성은 대단한 도시예요. 하지만 유입 인구가 많은 특성상 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넘기곤 해요.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안 선생님의 춤을 무료로 가르쳐왔어요. 용주사 같은 화성의 명소가 풍경이 아름답지만 한 곳은 아니거든요. 이동안 선생님의 제자였던 무용수 최승희가 용주사에서 춘 승무를 보고 조지훈 시인이 '승무'를 썼다는 이야기와 함께 춤을 알려주는 식이에요. 지역에 전하는 이야기, 즉 역사와 오리지널리티에 대해 알고 나면 '지역애'가 생겨요. 사는 곳에 더 머무르고 싶어지고요. 제 수업 이후로 용주사, 용건릉, 궁평항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어요. 이동안 선생님과 연계된 화성의 장소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춤과 함께 소개하게 되거든요.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이동안 선생님의 춤이 갖는 매력과 힘을 전할 수 있어요."

## ‘이동안-박정임-김정아’로 이어지는 화성 승무의 계보

이동안 선생은 1906년 화성에서 태어나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승무 외에 살풀이·태평무·진쇠춤·검무·희극무·선달무·북춤·소고춤 등 온갖 전통 춤에 능했고, 줄타기는 물론 대금·태평소 등 악기 연주와 남도 잡가(소리)를 섭렵한 종합 예술인이었다. 재인청 도대방을 지낸 경기도 세습무 집안 출신이었으며, 화성 재인청은 예총(예술인총연합) 같은 예술인 총괄 기관으로 악(樂)·가(歌)·무(舞)·음(音)·곡(曲) 등 국악 교육을 담당했다.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시행에 따라 재인청 해산이 강제됐고, 이동안 선생은 조선의 마지막 재인청 도대방으로 남았다. 1920년 원각사 등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예인의 길을 걸었고, 훗날 ‘발탈’로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발탈은 가로 1m, 세로 2m 정도의 포장에 숨어 온갖 재담과 소리로 엮는 가면극의 한 종류인데, 광대의 재담을 통해 양반 사회나 시대를 신랄하게 풍자한다. 1927년 일본 순회 공연, 1929년 임방울 등의 명인들과 중국 만주, 러시아 국경 지대로 순회공연을 다녔으며, 유서 깊은 예술 단체와 학계에 몸담으며 춤추고 후학을 양성했다. 김백봉 등 한국 무용계의 거목 대부분이 그를 사사했다.

“이동안 선생님에 대해 사람들이, 지역이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무용계, 예술계에 ‘이동안’이라는 아티스트가 있고, 그 옛날에 일본과 만주에 진출할 만큼 대단했고, 요즘 말로 아이돌이라 불릴 만한 분이란 걸 알려야 했어요. 이동안 선생님의 춤이 반드시 화성에 있어야 하고, 전수돼야 한다는 것은 화성시 문화유산과, 지역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뜻이자 의지였어요. 이동안류를 전수해주신 박정임 선생님 역시 이동안 선생님 제자인데, 두 스승이 지속해온 화성 이동안류 춤의 명맥을 저와 그 다음 세대가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됐죠.”



## 세계 무대를 노니는 화성 승무

쉬지 않았던 김정아의 승무는 그간 해마다 외국 초청 공연을 가졌다. 오는 6월에는 슬로베니아의 세계민속축제에 한국 전통 무용 단체로는 처음으로 무대에 선다. 2007년부터 무용단과 함께 칠레, 멕시코, 크로아티아,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전통 춤을 선보였다. 공연에선 승무뿐 아니라 궁중무용, 부채춤, 장구춤 등 다양한 무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열띤 환호와 갈채를 받기가 예사라고.

“승무를 보면서 동양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듯해요. 좀처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관객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응해요. 무용수와 교감이 이뤄져요. 승무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북을 치거나 다른 장르에서 피리, 대검 불면서 지전 날리고 춤추면 현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핫해요.”

김정아의 표현에 따르면 승무는 한국 무용 중 최고봉에 있을 만큼 고난도의 기술과 표현력이 응집된 장르다. 흔히 승무라고 하면 학처럼 고고하게 날거나 우아하게 장삼을 펼치며 선을 그리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동안류의 승무는 서민적인 춤사위로 툭툭 건드리듯 표현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이동안 선생님만의 춤이 갖는 특징이 녹아 있죠. 선생님의 춤은 서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민적이라 함은 꾸며지지 않는 춤을 의미해요. 소탈하면서도 거기에 해학이 들어 있고요. 오래전 예인들은 내면의 흥과 멋으로 그냥 툭툭 흘러가는 춤을 썼어요. 덩실덩실, 그건 꾸며서 디더지는 게 아니라 내재된 멋이 춤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때 마당에서 춤을 썼어요. 사방이 춤꾼을 보는 무대였던 말이지요. 이동안 선생님 춤의 기본은 사방 중심이에요. 걸음을 툭툭 디디는데, 그 발부터 관객하고 소통하게 돼요. 아주 어려워요. 관객을 보면서 ‘그래, 당신이랑 내랑 오늘 놀자고 되뇌이면서 그 순간에 몰입하고 즐겨요. 나를 내려놔야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다 내려놓으면 안 되죠. 춤추는 사람이 너무 즐거버리면 춤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즐길 줄 아는 ‘쟁이 근성’을 지키되 중도를 지켜야 해요.”

승무에 대한 고정된 혹은 치우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 국·내외의 많은 축제 현장에서 승무를 선보이며 한층 가깝게 만나고 싶다는 향토무형문화재 1호 김정아의 화성 승무의 날갯짓, ‘나빌레라’ 춤사위가 툭툭 디디고 올라설 그곳이 기다려진다.



# THE 가다

그곳을 가다

36

## Walk

화성의 카페를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초록으로 찬란하거나 빛으로 이채로운

40

## Archive

이정표, 사라진 갯마을의 표식을 읽다  
남양읍 장덕리

44

## Preview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본  
화성시문화재단의 유형별 기획공연 추천!

46

## Draw

문화로 잇다 화성을 그리다  
어반 스케치

48

## Travel

화성의 캠프닉 명소 텐트 밖은 '봄'  
새싹동산 청려수련원, 무봉산자연휴양림

## 화성의 카페를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초록으로 찬란하거나 빛으로 이채로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 중 하나가 카페가 아닐까. 유럽의 작은 마을이 떠오르는 자연 속 카페부터 파격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미디어아트 카페'까지, 따뜻한 봄날에 눈으로 먹고 맛으로 즐길 수 있는 화성의 핫플 카페 두 곳을 다녀왔다.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 화성 유일의 '미디어 아트' 카페 섹션

섹션은 이채롭다. 인테리어는 파격적이고, 디저트는 특이하다. 건물 외형뿐 아니라 실내까지 '독특함'이란 옷을 겹겹이 걸쳐 입었다. 그 옷들 중 하나가 '프로젝션 맵핑'이다. 테이블을 비롯한 룸 전체에 빛그림이 쏟아지는 3D 맵핑은, 건물 외벽을 비롯한 인테리어 공간 등의 대상물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는 기술이다. 화려한 영상미에 음향효과가 더해지고, 여기에 드라이아이스까지 분사되면서, 몽환적이면서도 색감 뚜렷한 풍경을 이룬다.

'린 컬렉션'도 '프로젝션 맵핑' 못잖게 시선을 사로잡는 섹션의 독특함 중 하나다. 테이블을 비롯한 의자, 소반 등 카페 내에 있는 모든 목재가구가 서정선 작가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누구든 작품에 앉아 작품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한마디로 섹션은 특별함을 마시는 카페다.

어둠과 함께 카페에 거대한 빛무리를 물고 오는 '실재의 오션지'도 눈부시긴 마찬가지다. 미디어 아티스트 'HWNA'의 작품으로, 순간순간 바뀌는 색감이 화려하고 움직임이 역동적이라 보는 내내 기분이 달뜬다.

디저트 라인업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다. 흙과 숲과 설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다. 흑임자무스 케이크에 크림블을 얹은 '흙'은 고소한 맛이 돌고, 치즈무스케이크에 코코넛 슬라이스를 눈처럼 흩뿌린 '설'은, 사각사각 눈 밟는 소리가 나 이채롭다. 초코무스 케이크에 파블로바의 겉면으로 구름을 만들어 얹은 '숲'은, 구름을 툭툭 두드려 깨먹는 맛이 일품인 디저트. 평범한 것이라곤 도통 없으니 여러모로 신기하다.



### ☺ 카페 이용 tip

문의	031-352-9292
주소	화성시 남양읍 신남안길 293
영업시간	매일 11:00~21:00
인스타그램	@section_kr
기타	반려동물 동반 가능



## 젊은 농부들의 유럽식 농장 카페, 더포레

‘더포레’라고 살짝 발음했을 뿐인데 이름에서 초록빛 나무 냄새가 난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연상되기도 하고, 열게 퍼지는 봄벌을 켜듯 마음이 금세 따뜻해지기도 한다. 이름만이 아니라 더포레는 풍경 또한 실제로도 그런 곳이다. “타사투더의 정원을 모티브로 했다.”는 주인장의 귀뜸이 아니더라도, 걸음 닿는 곳마다 숲의 기운이 충만해 좋다. 마치 계절을 담은 그릇처럼 카페 곳곳에서 식물이 자라, 식물이 주는 위로가 필요할 때 가볍게 찾기 좋다.

공간은 크게 여섯 개로 나뉜다. 블란서 빵공장과 포레샵, 키포크가든, 포레4, 리프하우스, 포레하우스. 이 중 리프하우스와 포레하우스가 사계절 푸른 식물원이다. 파파야와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과 허브를 키우는 두 개의 온실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빵을 먹을 수 있어, 머무는 내내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힐링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안녕이’에게도 아는 척을 해볼 일이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온실에서 보내는 안녕이는 날 좋을 때만 잠깐 다른 곳으로 산책을 간다는 길냥이. 순한 데다 애교가 많아 더포레의 마스코트로 통한다.

젊은 농부들이 만들어가는 유럽식 베이커리 카페를 콘셉트로 한 곳인 만큼, 더포레에서 빵은 꼭 맛봐야 하는 필수 메뉴다. 쪽파를 듬뿍 넣어 파 향이 솔솔 나는 쪽파크림치즈빵과 망고몽블랑이 요즘 대세다. 고소한 생크림과 소금의 단짠 매력이 극대화된 꽃소금라떼와 벚꽃과 딸기를 활용해 봄의 화사함을 강조한 딸기벚꽃라떼도 인기다. 4월에 자두나무가 연둛빛 꽃을 띄워 꽃향 그윽한 자두나무숲이 오래 머물기 좋고, 일행과 오붓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다면 키포크가든에 있는 우드 캐빈도 머물기에 제격이다.

### ☺ 카페 이용 tip

- 문의 031-352-9292
- 주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두렁바위길 49-13
- 영업시간 매일 10:00~21:00
- 인스타그램 @thefore\_4
- 기타 반려동물 동반 불가

### 봄 꽃, 그 향기가 질던 마을로

내가 처음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로 발을 들여 놓으면서 눈길을 둔 곳은 매바위와 77번 국도였다. 가까운 제부도에 큰 매바위가 남아 있다는 것도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이곳으로 오기 전, 인근의 매향리 또한 나를 의무감으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가장 먼저 답사해 보았다. 이원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흥난파의 동요 '고향의 봄'을 떠올리며, 가까이 이웃 마을 활초리에 있는 그의 생가도 찾아 보았다. 짧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불행한 일이 더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우울한 느낌을 버릴수 없었다.



## 남양읍 장덕리

글. 이화아 사진. 배영조

이정표, 사라진 갯마을의 표식을 읽다

당그런남은 바위를 보고 있으면

지금막심을한 바퀴돌아서 나온듯

그때그물소리,만산을불러오는듯하다

꽃길이란인데도저앞마을의풍영이흔들리고

분주하던생각들이모여드는봄밤날의

이제는홀어지고홀어져서고요한꽃길,그물길

화성시남양읍장덕리를찾아간다.



- 1 장덕리 매바위 전경
- 2 장덕리 버스정류장
- 3 마을 전경

내가 만난 장덕리는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 이었다. 이곳을 찾으려면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나들목을 빠져나와 남양읍을 거치는 322번 지방도로를 자동차로 와야 한다. 지금은 도로가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갈라져 있어도 잘 정비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제부도를 긴 방향으로 잡고 이정표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아 들기가 수월하지 않았고, 장덕리로 접어드는 길은 더 어려움이 있었다. 비포장 도로를 흔들리는 자동차로 운전하여 엉금엉금 기어들기를 여러 차례, 남양천 독을 따라 자동차로 달려야 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깨끗한 남양천 제방을 따라 좁은 길로 접어들면 오히려 긴장감이 조금은 풀리고 느슨해져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생겼던 것이다. 조금 높은 언덕이나 구릉에는 교회며 집들이 드문드문 보이고 배나무, 복숭아나무가 탐스럽게 꽃을 달고 작은 골들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꽃향기가 코 끝으로 들어올 즈음, 자동차는 벌써 77번 국도에 접어들어 있다. 도로는 높은 지형을 따라 언덕을 오르계곡 되어있어 오래잖아 시야는 멀리까지 나아가고 편안한 기분이 들면 장덕리에 접어든다. 아쉽게도 현재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밟이며 구릉들이 택지로 개발되고 아파트나 상가들이 들어차 신시가지의 형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77번 국도는 끝까지 달려가면 어느 순간 뚝 끊어진 채 당혹감을 안겨주며 우리 앞에 나타난다.

**때로는 시행착오가 생존의 논리로?**

한 시대의 대세에 밀려나 사라진 포구가 장덕리의 남서쪽 끝이다. 가난과 굶주림을 면해보고자, 국토를 넓힐 목적으로 간척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어 지금은 보물로 여겨지는 갯벌이 사라져 버렸다. 일명 화옹지구라 일컬어지는 습지와 그 주변으로 많은 농경지를 얻기는 했지만 그보다 값진 갯벌이 사라져 버렸다.

시행착오를 거쳐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숨 고르기를 하듯,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듯 습지가 만들어졌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인 철새와 텃새들이 모여들고, 쉬어가고 동지를 틀기 시작했다. 생태계를 위해 습지를 보존하려는 단체들과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제적인 관심이 이곳으로 모여지고 있다.

**같이 가는 먼 길, 람사르협약의 등재를 위하여**

이른 아침, 서둘러 나무들로 뿔뿔하게 들어 찬 장덕리 매바위 주위를 선회 비행을 하듯 몇 바퀴 돌아다 보았다. 꽃향기로 만발한 봄날, 매들도 여기에서 짝을 맺고 동지를 틀고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을 지금은 훈련을 시키느라 매서운 눈을 치켜뜨고, 나를 예민하게 노려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바다를 창공 삼아 날개와 꼬리깃을 활짝 펴고 자유를 만끽하듯 비행하는 매의 모습이나, 먹이를 낚아채 서둘러 동지로 향하는 역동적인 매의 모습이나, 일순간 숨을 멎게 해 버리는 앵글 속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이 운슬을 배경으로 튀어 오르는 물고기를 낚아채는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을 멍금류를 쫓아 다니는 후배의 사진에서 생생하게 본 적이 있다. 후배는 간혹 화옹호 주변을 다녀간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훌륭한 멍금류의 사진을 화옹호 주변에서 찍었다는 말은 아쉽게도 그의 입을 통해 듣지 못했다.

람사르협약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습지는 24곳이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지만 이 숫자는 그 나라 국민들이 자연을 대하는 척도나 국가적인 신임도를 느끼게 해주는 지표로도 활용된다고 한다. 서해의 여러 갯벌이 이 협약에 등재되어 있고,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관리와 홍보를 하고 있다. 가까운 안산시 대부도 갯벌도 그 한 곳이다.

친환경이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시대의 대세이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중간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화옹호. 수 많은 철새무리가 군무를 이루고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현재의 화옹호가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가끔 철새들의 무리를 따라며 쉬엄쉬엄 걸어 보라 권해 보고 싶다. 장덕리를 기점으로 습지를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횡재를 하듯 매를 만날지 누가 알겠는가! 저 창공을 비행하는 해동청 보라매를.

이화우 2006년 <매일신문> 신춘문에 당선 / 시조집 『하덕』, 『동해남부선』 발간



화성습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본

# 화성시문화재단의 유형별 기획공연 추천!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네 부부 이야기를 친근한 대중음악으로 풀어낸 뮤지컬 드라마 <당신만이>부터 대한민국 대표 교향악단인 KBS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국내 초연곡 '세계를 위한 새 아침: 자유의 여명'까지 많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나랑 잘 맞는 공연은 무엇일까? 유형별 나에게 맞는 공연을 추천받고 미리 만나보자!

글. 한승민(공연기획팀)

공연정보 | 1588-5234



5.18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당신!

### 뮤지컬 드라마 <당신만이>

"1년에 치를 제사가 무려 8번!"

오늘도 제사 때문에 등골이 휘는 '필레'는 남편 '봉식'을 짐꾼으로 삼아 장을 보러 나선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필레가 부끄럽기만 한 봉식. 콩나물 값 50원에서 시작 된 싸움은 급기야 이혼선언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부의 37년간의 러브스토리는 어떻게 될까?

일시 2024. 5. 18.(토) 오후 2시, 6시    장소 누림아트홀  
가격 전석 2만 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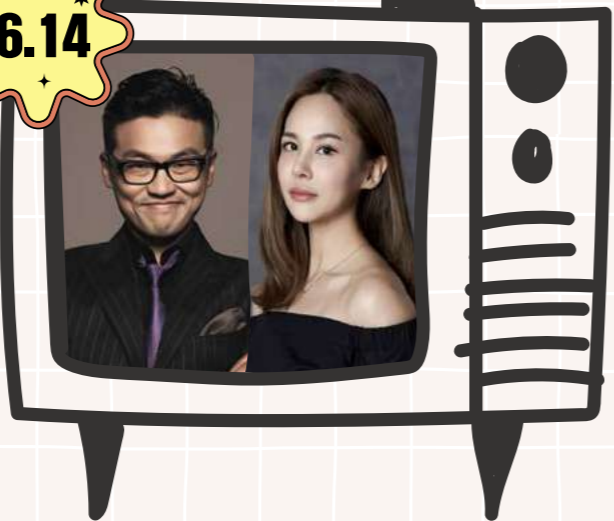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지친 마음을 위로 받고 싶은 당신!

### <금요일N재즈: 아이비&조운성밴드>

"금요일 저녁, 재즈 한잔!"

가수 '아이비'의 고혹적인 목소리와 재즈피아니스트 '조운성'의 매력적인 선율이 넘쳐흐르는 순간, 재즈의 자유로움에 중독된다. 아이비가 들려주는 색다른 재즈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무대로,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지친 퇴근길을 위로한다.

일시 2024. 6. 14.(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7만 원                                    대상 만 13세 이상



6.28



©요엘 레비, Seung-Won, Jang

국내 초연의 클래식 공연을 만나보고 싶은 당신!

### <2024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날의 연주는 1963년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명연설이 내레이션으로 삽입되어 있는 작품 '세계를 위한 새 아침: 자유의 여명'으로 시작한다. 미국 작곡가 슈완트너의 작품이자 국내 초연되는 본 작품은 홀스트의 '행성'과 함께 이스라엘 출신의 지휘자 '요엘 레비'에 의해 '우주 안에 하나의 인류'를 주제로 재해석된다. 분열과 고립, 전쟁과 상처, 대립과 공포로 얼룩진 인류를 향해 회복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감상해보자.

일시 2024. 6. 28.(금) 오후 7시 30분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R석 7만 원 / S석 5만 원 / A석 3만 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

교육과 문화생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은 당신!

### <초등학생을 위한 실험실 콘서트1>

"음악으로 과학을 만나고 과학으로 음악을 즐긴다!"

음악을 듣는 동안 우리 '뇌'는 무엇을 할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집중에 도움이 될까? 엉뚱한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공연이 열린다! 재미있고 지루할 것만 같은 과학과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음악, 굉장히 다를 것 같은 과학과 음악이 알고 보면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정답이 궁금하다면 실험실 콘서트로 찾아가보자.

일시 2024. 6. 15.(토) 오후 4시    장소 누림아트홀  
가격 전석 2만 원                                    대상 8세 이상

6.15



※ 상기 공연 일정 및 운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문화로 잇다 화성을 그리다 어반 스케치 Urban Sketch

화성시민 여러분들이 화성시의 곳곳을  
어반 스케치로 그려 보내주신 작품들을 담았습니다.



서종미 시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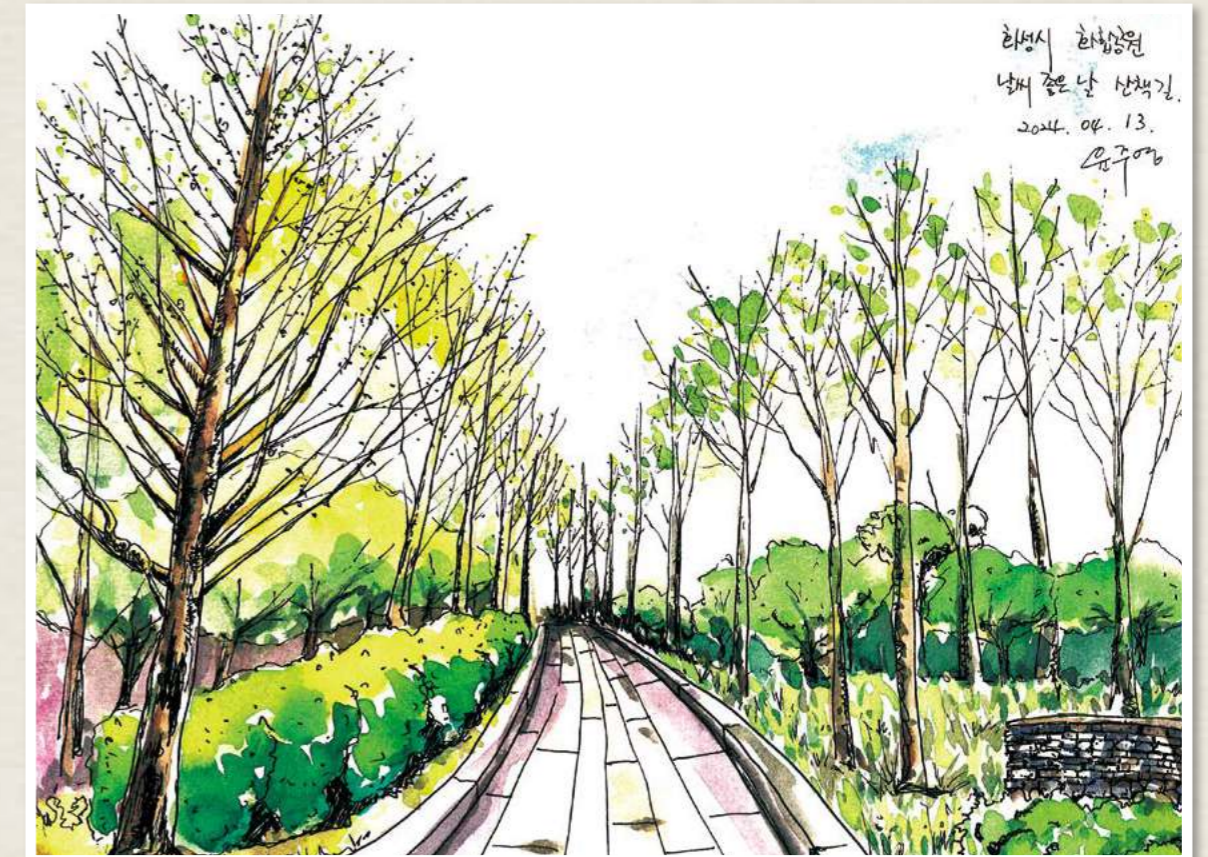


시민 여러분이 직접 그린 우리 화성시 풍경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시민 작가님께서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보내실곳 [hcfort@naver.com](mailto:hcfort@naver.com)



박선미 시민작가

김지영 시민작가



윤주영 시민작가

# 화성의 캠크닉 명소 텐트 밖은 '봄'

온통 초록으로 가득한 요즘이다. 촉촉한 나무 그늘 아래로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간지럽고, 실바람 따라 살랑이는 꽃잎을 보면 마음마저 소복하다. 드디어 캠핑을 나설 때다. 하지만 바리바리 챙겨 떠나는 건 왠지 부담스럽고, 지나치게 단출한 건 또 아쉽다. 이럴 때 '캠크닉'을 즐겨보자. 캠크닉은 '캠핑 느낌 물씬 나는 피크닉'을 뜻하는 신조어. 화성에서 캠크닉으로 계절마다 '예뻐'를 즐기기에 좋은 캠핑장 두 곳을 소개한다.

글·사진. 최주환



청려수련원

# “벚꽃 아래 텐트 존, 여기가 캠크닉 명당” 벚꽃부터 단풍까지 다 즐기는, 새싹동산 청려수련원



벚꽃을 사랑하는 이들도 많고, 벚꽃 그늘 아래에서 쉬는 일에 진심인 이들도 많다. '새싹동산 청려수련원(이하 청려수련원)'은 캠퍼들이 손꼽는 국내 '벚꽃캠핑장' 중 하나다. 벚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4월 초면 수련원 일대가 온통 연분홍빛 꽃구름으로 환해질 정도다. 벚꽃 철에 이곳에 간다는 건 그래서 이 몽글몽글한 꽃구름 아래에서 캠핑을 즐긴다는 뜻이다. 상상해 보라. 텐트를 덮을 만큼 그늘 넓은 벚나무 아래에서 즐기는 캠크닉을. 그건 마치 벚꽃 속에 집을 지은 듯 황홀한 일이다.

이 같은 몽환의 풍경을 이룬 데는 시간의 힘이 컸다. 청려수련원은 지난 1988년에 개원한 화성 유일의 민간 청소년수련원이다. 수련원이 지나온 시간만큼 벚나무의 시간도 흘러, 꽃그늘은 나날이 넓어지고 키도 훌쩍 자랐다. 덕분에 이곳은 수도권에서 손꼽는 벚꽃 캠핑 명당이 됐다. 5월이면 벚나무가 뿜어내는 신록이 청신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고우니 이 또한 충분히 아름답다.

하지만 이곳의 매력은 단지 벚꽃에만 있지 않다. 드넓은 운동장 대부분이 푸른 잔디밭이라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무엇보다 좋다. 잔디밭의 가장자리로만 사이트를 설치해 아이들이 온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돋보인다. 그래서일까. 이곳에서는 어쩐지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캠크닉과 함께 차크닉과 캠핑(숙박)이 가능하고, 수련원 본관에서 '깨끗한 지구'를 테마로 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니 함께 이용해 볼 일이다.

## 🏠 이용 가이드

### 이용 시간

대운동장 / 소운동장 캠크닉 : 12:00~19:00

노지차크닉 : 09:00~19:00, 12:00~19:00

### 예약 방법

- 네이버에서 청려수련원 검색 후 예약
- 숙박 이용은 대운동장, 소운동장 권역 예약(사이트 임의 배정)
- 당일 이용은 차크닉 / 캠크닉 예약(사이트 임의 배정)
- 가족 단위로만 이용 가능



“오두막은 못 참지!  
신상은 더 못 참지!”  
쾌적하고 로맨틱한 화성 핫플,  
무봉산자연휴양림

‘요즘 대세’라고들 했다. ‘완전 핫플’이라며 흥분하는 이도 있었고, ‘찐’이라는 말로 ‘좋다’는 말을 몇 번씩 대신하는 이도 있었다. 동탄신도시 옆에 있는 무봉산자연휴양림 얘기다.

지난해 11월 임시 개장한 무봉산자연휴양림은 화성시에서 처음 만든 도심형 자연휴양림이다. 6월 1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지만 이미 ‘핫플’로 입소문 난 지 오래다.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신상 휴양림’이란 점이 크게 작용했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 캠핑장 특유의 매력도 한몫했다.

무엇보다 캠프닉 콘셉트가 유효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형 휴양림의 캠프닉존은 ‘내 곁의 숲 속 별장’ 같은 느낌. 언제든 맘 편히 몸 편히 찾아 갈 수 있는 데다, 캠핑과 피크닉의 장점을 쏙쏙 뽑아 누릴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더욱이 이곳은 ‘피크닉장’이란 이름의 캠프닉존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돼 골라 즐기는 재미가 있다. 바비큐그릴이 비치된 피크닉테이블존은 맛난 하루를, 삼각뿔 모양의 오두막에서 바비큐 등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오두막존은 우리만의 힐링 타임을 선물한다. 오두막존에 바투 붙은 잔디마당도 캠프닉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푸른 잔디 위에 텐트를 치고 눕는 잠시가 생각보다 로맨틱하다.

자연 속에서 온전히 하루를 쉬어갈 수 있는 ‘숲속의 집’과, 숲속 그늘에 누워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데크 야영장도 인기 만점이다. 아이들에게는 산림자원체험관의 미디어파사드도 유혹적인 볼거리. 한 톨의 씨앗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과정이 화려하고 신비롭게 펼쳐진다.



### 🏠 이용 가이드

#### 이용 시간

숲속의 집 / 데크야영장 - 15:00~익일 11:00

피크닉장(피크닉테이블, 오두막) - 오전(10:00~23:00), 오후(14:00~17:00)

#### 예약 방법

- 무봉산자연휴양림 또는 숲나들e 접속 후 온라인 예약
- 매월 1일부터 2일까지 화성 시민 우선 예약
- 3일부터 전 국민 예약 가능

일반 탐방 | 당일 예약 없이 가능

# THE 하다

동행하다

54

## Hello

화성시문화재단이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지원에 대하여  
예술지원팀장 김태동

58

## People

화성인이 전하는 일상,  
그리고 행복 한 스펀

60

## List

시니어를 위한 여가 추천 리스트  
힙한 시니어 여기 모여라  
시니어 댄스스포츠 <K댄스>

64

## Culture & Issue

5~7월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70

##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독자 만족도 조사

72

## Place

배포처 및 구독 안내





화성시문화재단이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지원에 대하여

## 예술지원팀장 김태동

역동적이고 유쾌하며 가능성으로 가득한 도시 화성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화성 시민들의 바람과 또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술지원팀 김태동 팀장도 그중 한 사람이다.

글. 노유찬 사진. 지선미

**팀장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화성시문화재단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던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 운영 전반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 진행에 있어서는 공통분모가 상당히 많아 꽤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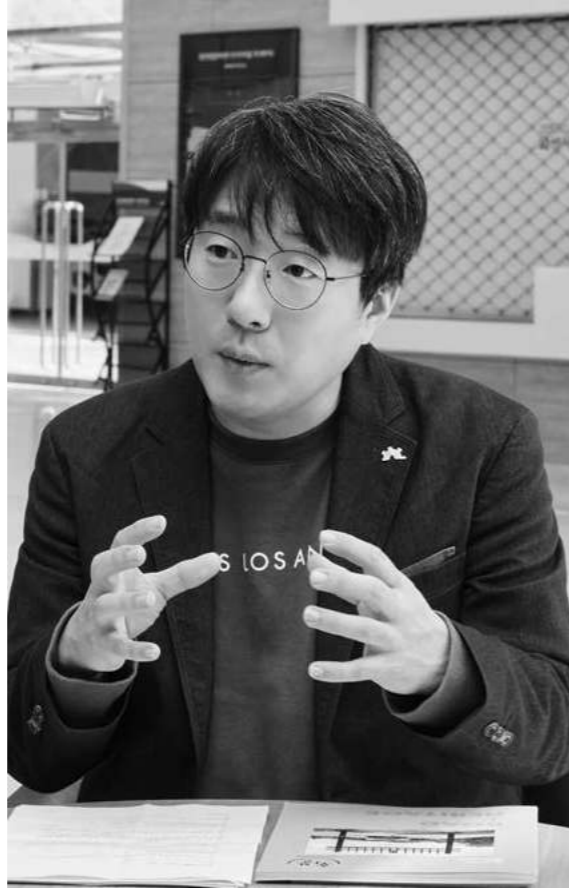
**기념관과 재단에서의 업무가 다를 것 같은데, 공통분모가 많다니 흥미롭습니다.**

온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둘 다 개인적으로나 공공의 목적으로나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임은 분명합니다. 간단히 추가 설명해 드리자면, 기념관의 경우는 지역의 3·1운동을 알리고 관련 유물의 발굴과 전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반면 우리 재단은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속한 예술지원팀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보편적으로 보면 화성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및 단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동아리 등을 통해 문화 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전반에 관여합니다. 이 밖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진 예술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를 통합한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화민주화를 넘어 예술가들 스스로 자립 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인 문화민주주의가 가능한 순환구조가 건강하게 정착되길 희망합니다.



### 2024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초 화성시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예술가분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공모로써 107건의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4개의 지원 줄기를 기반으로 화성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구현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작가님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시기는 빠르면 6월에서 7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부문 등 다양한 장르에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여느 지원 사업들과 달리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될 사업이라는 부분인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해랑 케이블카의 로비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화성시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화성시가 보유한 우수한 문화와 예술 자원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수 작가님들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지속 가능한 작품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통합공모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발견한 우리 화성시의 문화적 가능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작품의 선정에 참여해 주신 심사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작품의 다양성은 물론 우위를

가르기 어려울 정도로 양질의 작품이 많았다는 부분이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화성시가 위치한 지역적 특징에서 비롯된 부분으로써,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다양성이 반영된 문화적 토양으로 보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문화 인구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또한 문화적 잠재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자원이라고 확신합니다.

### 개인적으로 현재의 직업에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진행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된 예술인들께서 보내주신 긍정적 반응을 경험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경험은 문화와 예술의 최종 종착지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호응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며, 이를 통해 제가 사업의 방향성을 잘 잡았고 또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만족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제 능력의 부족은 아닌가 하는 이유로 무력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 최근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몰두하고 있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몰두하고 있는 주제라기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통합지원과 같은 맥락의 문화민주화를 넘어 예술가들 스스로 자립 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인 문화민주주의가 가능한 순환구조가 건강하게 정착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고르게 돌아갔으면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또 정착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1년이라는 기간을 문화라는 분야에 몸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박물관에서의 기간과 재단에서의 기간으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먼저 박물관에서는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장전을 개최했던 기억이 가장 크게 남아 있는데, 당시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화성지역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장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재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4 꿈의 무용단 신규 거점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성과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당시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굴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의 노고로 일궈낸 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로써 우리 화성시는 향후 3년간 매년 1억 원씩, 이후 2년간 매년 5000만 원씩 모두 4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창작무용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문화적 취약계층 50%)들을 위한 문화적 자양분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삶과 일상에 영감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에게 영감을 주는 요소를 꼽자면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겠으나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상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체도 그중 하나이고요. 한편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공간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원인 재래시장 그 자체입니다. 빛, 컬러, 물품이 진열된 정도에 따라 점포별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가 될 수도 있잖아요.

### 개인적으로 또는 재단의 일원으로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문화 예술과 관련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남긴 흔적이 먼 훗날의 역사가 될 것이며, 또 미래의 문화와 예술을 견인할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팀과 재단 식구들이 하고 있는 오늘의 일들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성하면 떠오르는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고 싶은 개인적 바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화성인이 전하는 일상, 그리고 행복 한 스펀

생각만으로도 설레임을 선물하는 봄이 왔습니다.  
마치 팝콘처럼 봄을 틔운 벚꽃잎과 노란 개나리꽃에 우리의 미소도 만개하지요.  
이러한 봄날과 관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과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 김지연 | 우리 집 마스터 셰프

어느 봄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는 부모님의 제안으로 등산을 하러 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우리의 옷차림은 등산하기에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고, 신발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신랑은 아빠의 옷을, 나는 엄마의 옷을 입고 등산을 떠났다. 이상한 옷차림으로 등산을 시작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등산 중간에는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우리의 머리카락을 감싸 돌았고, 새콤한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는 꽃 잔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냇이 모두 웃으면서 꽃 잔디에 앉아 있었다. 그 꽃 잔디는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온화하고 아름다웠다. 정말로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었다.



## 여상희 | 영어강사

봄은 아이 엄마가 된 나에게 긴장되는 새 학기의 시작.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매일 아침 노심초사하며 달려 보내고 나 자신에게는 겨우내 이곳저곳 붙은 살을 빼야 하는 계절이다. 향기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봄, 설레는 바람과 꽃이 온 세상을 들뜨게 하는 행복의 시작이다.



## 최선영 | 주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어디로든 산책을 나서게 되는 봄이다. “게으름을 피우다간 눈 깜짝하는 사이 사라져버리기에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책\_무과수의 안녕한, 가>의 문장처럼 짧은 봄, 내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이유다.  
봄꽃들이 짧게 피고 지는 봄날에 꽤 오랜 시간 셋노란 색을 담당하고 있는 개나리는 벚꽃에 비해 인기가 적은 것 같지만, 노란 꽃이 잔뜩 피어있는 걸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어서 좋다. 제 시기에 맞춰 활짝 핀 개나리를 보니, 예전에 딸과 함께 산책을 하다 개화시기보다 일찍 핀 꽃을 보며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엄마 개나리꽃이야! 겨울에 왜 폼?” 나는 개나리로 분해 연기를 시작했다. “안녕? 난 개나리라고 해. 난 원래 추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피어나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되게 추웠다가 이번 주는 엄청나게 따뜻했잖아. 그래서 나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됐는 줄 알았지 뭐야~ 봄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빨리 폼났다.”  
그러자 딸이 아주 진지하게 “옆을 봐. 겨울이잖아. 눈으로 보면 되는데 왜 착각했어?”라고 말했다. 그 진지함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다. “난 눈이 없거든. 온도로만 계절을 느낄 수 있어.” “아하, 그렇구나. 눈이 없어서 못 봤구나.” 하며 신기해하던 꼬마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옛이야기에 자기가 정말 그런 말을 했었느냐며 생각이 귀엽단다. 내 눈엔 너도 아직 어린아이일 뿐인데 말이지. 이젠 개나리에도 초록 잎이 나기 시작했다. 내년 봄에도 제 시기에, 어린 딸과의 추억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본다.

‘PEOPLE’은 매호 주제와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글 또는 그림,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호 독자공모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공지합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특별한 선물과 함께 《화분》 지면에 공유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여가 추천 리스트



# 힙한 시니어 여기 모여라 시니어 댄스스포츠 K댄스

시니어에게 '댄스스포츠'가 여느 운동 못지않게 근력을 발달시키고 근육과 관절 등을 고루 쓰게 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잇는 '이 운동'에는 파트너와의 교감, 동료와의 친교가 동반된다.

글. 최정순 사진. 배호성



## 10년 전 쏘아 올린 댄스 챌린지

SNS 상에서 해시태그를 붙인 다양한 챌린지를 보곤 하는데, 가장 핫한 분야는 아이돌의 댄스 챌린지 같은 춤에 관한 콘텐츠다. 인상적인 동작 위주로 구성된 댄스 챌린지는 숏폼 플랫폼에 잘 어울리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 춤과 음악이 자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스포츠 요소가 가미된 사교댄스인 댄스스포츠(스포츠댄스)는 주로 2인 1조로,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흐르는 몸짓, 활기차거나 관능적인 동작 등으로 나뉜다. 춤 기술을 바탕으로 곡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배움과 연습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숙련된 댄서 간의 호흡에서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댄스스포츠를 색다른 운동으로 여기게 된 요즘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으레 색안경을 끼고 보기 급급했다.

“댄스스포츠나 사교댄스가 재조명 받으면서 100세 시대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이제는 피부로 느껴요. 어찌면 우리가 쿼피드의 화살을 잘 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그 화살을 쏘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내년이면 창단 10주년을 맞는 시니어 댄스스포츠 팀 'K댄스'의 김경희 회장이 쏘아 올린 댄스 챌린지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시니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

시니어 댄스스포츠를 근간으로 한 K댄스는 연령층에 맞춰 재구성, 재편성한 춤 동작과 음악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창단한 지 열 돌을 맞은 동아리로, 김경희 회장을 비롯해 현재 스무 명 남짓한 멤버가 속해 있다. 김경희 회장은 오래도록 몸담았던 교직을 은퇴하면서 그동안 취미로 즐겼던 댄스스포츠를 남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 회장 부부는 교직에 있을 당시 방학을 이용해 댄스스포츠 연수를 다녀오곤 했는데, 은퇴 이후 주어진 시간은 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기회나 다름없었다. 우아하면서도 격조 있는 몸짓에 끌려 지역 자치센터에서 강습을 받았다. 3개월 단위로 수업이 이어졌지만, 분기마다 새로이 수강생이 들어오면 초기 과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여간 아쉬웠다.

“댄스스포츠 수강생 가운데 초급, 중급, 고급처럼 수준 차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댄스스포츠에 대한 욕심, 그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공청회를 열어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댄스 팀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고, 그때 회장을 맡은 것이 오늘에 이르렀네요.”

김경희 회장을 통해 내규, 입회 방식 등의 윤곽이 세워졌는데,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입회비 10만 원 납부와 함께 평생회원 등록, 이후 월 회비 3만 원 납부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K댄스의 멤버 대부분은 부부 사이로 스물다섯 명 남짓한다. 6070 세대를 주축으로, 80, 90대의 명예 회원도 있다. 함께 스텝을 맞추지 않더라도 이들은 연습실, 공연장을 가리지 않고 동행하며 10년 내공에 빛나는 팀워크를 몸소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여간 춤 연습을 쉬기도 했지만, 지난 공백을 메우는 건 역시나 연습, 그저 연습이다. K댄스 멤버들은 재결성이나 다름없는 마음가짐으로 일주일에 두어 번씩 모여 몇 시간이고 춤을 춘다. 부족하다 싶을 땐 나머지 공부하듯 남아서 추가 연습을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그렇지 않죠? 시니어에게 갈 곳이 있다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 생기를 주고 환기를 시켜줘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춤추려면 일단 씻어야 하고 가꿔야 하고 차려 입어야 하죠. 그건 자신을 위한 것인 동시에 상대를 위해 필요하니까요. 댄스스포츠는 상대방이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너는 필수예요. 만약 커플 중 한 사람이 부재할 땐 체인징 파트너 방식으로 서로 배려하면 돼요. 파트너를 위해서도 연습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K댄스의 역사에는 멤버들의 무수한 연습, 대회 출전이나 축제 무대에 선 다양한 경험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찾아갔던 공연 봉사 등이 켜켜이 쌓여 있다. 물론 거기에는 10년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댄스 강사와의 합도 포함된다. 10년을 만났으니 함께 먹은 밥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고, 서로의 집에 손가락 밥공기가 얼마나 되는지 훤히 알 법하다. 일정하게 시간을 보내며 공동으로 성취한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다. ‘혈액형만 다른 형제’라는 멤버의 표현에 반색하는 김경희 회장은 K댄스의 최대 강점으로 단연 화합과 단합력을 꼽는다.

“멤버들은 다채로운 특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치매 치료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분, 색소폰부터 하모니카, 드럼, 아코디언 연주에 능한 분, 전속가수로 통하는 노래 잘하는 분 등 다양한 장르가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K댄스 팀만으로 거뜬히 프로그램을 꾸려 봉사를 다닐 수 있는 거죠. 단체로 댄스스포츠 퍼포먼스를 하고, 각자 장기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레크리에이션까지 가능해요. 2019년 코로나 전까지, 2017~2018년 K댄스 팀이 진짜 꽃을 피웠어요. 각종 댄스스포츠 대회에 참가해 시니어 부문 대상을 거머쥐었죠. 다시 모였으니 올해부터 다시 활성화될 거예요. 팀은 물론이고 남편과 개인전 부문에 출전해 알츠로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고 싶어요.”



### INTERVIEW



김경희 K댄스 회장

#### 시니어에게 춤이 주는 의미는 뭔가요?

삶이 충전되죠. 활기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요. 38년간 교직 생활을 했어요. 지난 경험과 노하우를 춤추는 활동이나 동아리 운영을 기회로 쓸 수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나만 발전하기보다 상대방, 동료들이 모두 발전할 기회를 갖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빨리 가고자 한다면 혼자 빨리 가면 되죠. 그런데 함께 가는 재미가 특별히 있어요. 무언가를 이뤄내는 공동체, 그 값진 성취감이 소중한데요.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 앞으로 K댄스가 어떤 팀이 되길 바라나요?

오래도록 건강하게 춤추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팀 안에서 즐거움은 곱하고 어려움은 나누기 하면서 아름답게 노년의 시절이 머물렀으면 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식들보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걸요. 서로에게 보약 같은 친구가 되길 바라요.

#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화성시 예술인 20명의 솔직한 인터뷰  
‘궁금했으면 하는 이야기 H’ 유튜브 공개



화성시 예술인 20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궁금했으면 하는 이야기 H’ 시리즈가 화성시문화재단 SNS에 공개되었다. ‘궁금했으면 하는 이야기 H’에 출연한 예술인 20명은 각각 시각예술 분야 11명, 공연예술 분야 7명, 문학 분야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공연·전시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거나 화성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한 예술인들이다. 인터뷰는 영상과 뉴스레터 두 가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 궁금했으면 하는 이야기 유튜브

문의 예술기반팀 031-290-4663

전국 뮤지션 경연 대회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올해로 7회를 맞이해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역대 수상 팀들이 방송 및 대회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며 명실상부 최고의 경연 대회로 자리 잡은 ‘라이징 스타를 찾아라’는 올해도 화성시를 뜨거운 젊음과 열정이 담긴 무대로 물들인다. 2024년 더욱 확대된 특전으로 치열해진 경쟁이 예상되는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는 총상금 1,200만 원과 음악 전문 해외 아트마켓 진출 등 다양한 특전을 곁들 펼쳐진다. 경연 우승 뮤지션은 시민평가단 100인과 전문 심사위원의 현장투표로 결정되며, 시민평가단은 사전 신청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K-뮤지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 등 차별화된 특전으로 뜨거운 경쟁이 기대되는 경연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미래의 스타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문화사업팀 031-290-4632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입주창작자 전시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  
별난 작가들의 수다 手多



[BOHO]\_2024\_91×65.2cm watercolor on paper (윤주영 작가)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입주 창작자들 중 ‘별난 작가들의 수다 手多’ 팀은 4개 분야 4명의 작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임이다. 2024년 환경을 주제로 그들은 전시 및 강좌, 환경운동, 줍킹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중 5월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로 전시를 개최한다. 또한 6월에는 에피소드 전시로 식당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들을 주제로 입주 창작자 ‘별난 작가들의 수다’, ‘모던앤수’ 두 팀 총 6명의 작가들이 [뭐라구요?] 전시를 개최한다. 5월 [나비가 나에게 사과했다]는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나비들이 그 땅에 돌아올 수 없는 안타까움을 전시로 풀어서 해석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생활문화팀 031-8059-1645

세계 도시를 거니는 인문학의 여정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도시별 인문 산책: 도시를 걷다, 도시를 느끼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에서는 2024년 3월부터 12월 까지, 도시와 문학,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별 인문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화성시민들에게 인문학의 일상화 도모 및 글로벌 문화 체험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이 특강은 이스탄불, 델리, 파리, 하바나, 바르셀로나 등 세계 각 도시를 대표하는 문학과 예술의 인문학적 탐색을 제공한다. 강연은 경희대학교 글로벌인문학술원 현대문학연구소 교수진과 함께 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도시의 문화와 역사 공부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세션은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그 도시가 지닌 독특한 문화·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시별 인문 산책’은 청소년 이상의 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홈페이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031-8015-8200

# 자유공간 29

## 더해라커뮤니티 <몸짓 유랑 ep. 치동천 힐링마을>

예술과 지역에 대한 애정 프로젝트 <몸짓 유랑 ep. 치동천 힐링마을>이 6월 넷째 주부터 7월 첫 주까지 영천동 복합문화공간(더해라몰스테이), 카페 및 산책로, 유희공간에서 진행된다. 몸짓으로 감각하는 유랑적 산책, 관객 참여 퍼포먼스가 혼재된 이번 프로젝트는 총괄 디렉터이자 리더 아티스트인 김성원(헤라) 예술가가 관객과 함께 진행한다. 프로젝트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더해라커뮤니티 인스타그램(@theherastay\_body)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치동천 힐링마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시선과 감각으로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타래 <전통 한 모금>

국악 크로스오버그룹 타래(TALE)의 '화성시 한옥 카페, 예술로 즐기기 <전통 한 모금> 공연이 5월 9일 2시에 굿빈스시그니처에서 개최된다. 음악만 들어도 자연스레 떠오르는 일본 애니메이션 속 장면들. 울컥하게 만드는 나의 인생 곡을 소개하는 <국악으로 만나는 인생곡 시리즈, My Anime Playlist>는 가야금, 아쟁, 기타, 베이스, 드럼, 건반 구성으로 공연을 한다. 두 번째 공연은 6월 23일 오후 2시 화림원에서 전통 타악 연주자 '황민왕'과 화화작가 '진광영'의 공연이 진행된다.



## 라이프에디트협동조합 <우당탕탕 바다를 찾아서: 습지 탐험대>

라이프에디트협동조합의 공감과 공존의 뮤지컬, 상상을 자극하는 모험 스토리. 안전 환경 뮤지컬 <우당탕탕 바다를 찾아서: 습지 탐험대>가 5월 중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비봉습지공원을 배경으로 촬영 및 상영될 이번 공연은 시각장애인인과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출연하며 장벽 없는 문화생활을, 비장애인에게는 감각의 확장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문화 풍당, 풍화당!>

운치 있는 문화제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가 진행하는 <문화 풍당, 풍화당!>이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도 문화재 112호 남양읍 풍화당에서 진행된다. 음악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마당놀이 <남양도호부사 납시오>, 종이컵 인형극 <그것 참 좋다>, 판타지 토크극 <靑,靑(청,청)> 공연과 벽화 미션 프로그램, 전통 간식거리 즐기기, (주)아트컴퍼니 국악 연주 등이 다채롭게 구성된다. 어스름 달빛이 들기 시작할 무렵인 오후 6시부터 신명나는 비밀스러운 공연들이 펼쳐질 풍화당에서 화성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안드로메다픽처스 <VaporHouse(베이퍼하우스)> 프로젝트

안드로메다픽처스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실험적 예술활동 <VaporHouse> (베이퍼 하우스) 프로젝트가 오는 6월 1일(토)부터 6월 30일(토)까지 고온항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서 진행된다. 우정읍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깊은 근현대 역사를 동시에 간직한 고온항 일대에서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실험과 소통을 살펴볼 수 있다. 고온항의 빈 찻집을 전시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Paradise KOONI>는 6월 1일 오후 6시 오픈 행사를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갖는다.



## 창문아트센터 <Neo Nomadism>

창문아트센터의 <Neo Nomadism> 전시는 유희공간 3곳에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6월, 9월, 10월에 전개된다. '도시-농촌-어촌을 잇는 사유의 여정'으로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들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예술가와 지역 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전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1차 전시는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내 유희공간에서 진행되며 작가의 작품과 함께 지역민들이 제작한 어반드로잉, 도예, 회화, 사진, 등의 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예술가와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5 May

##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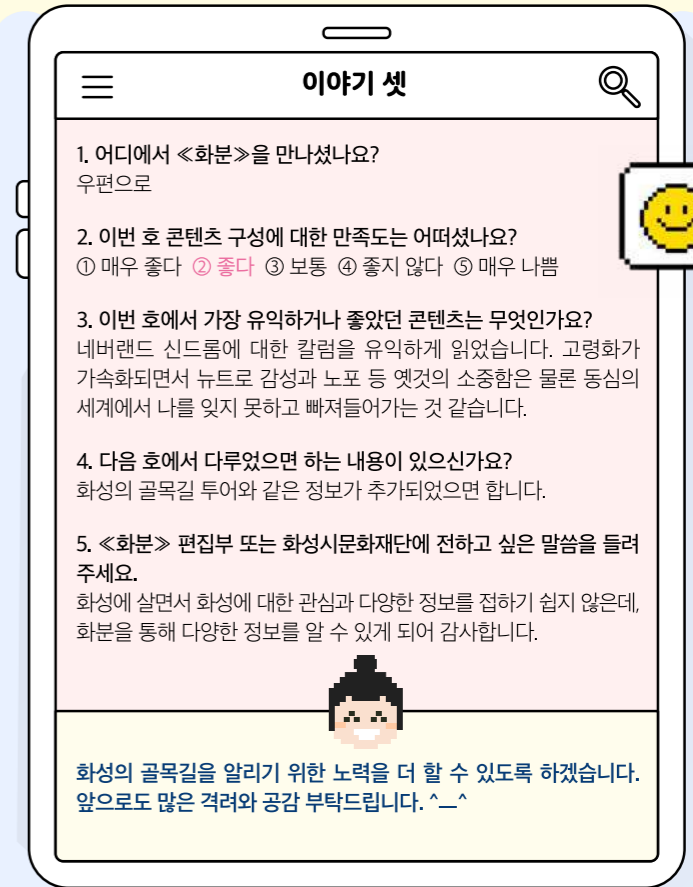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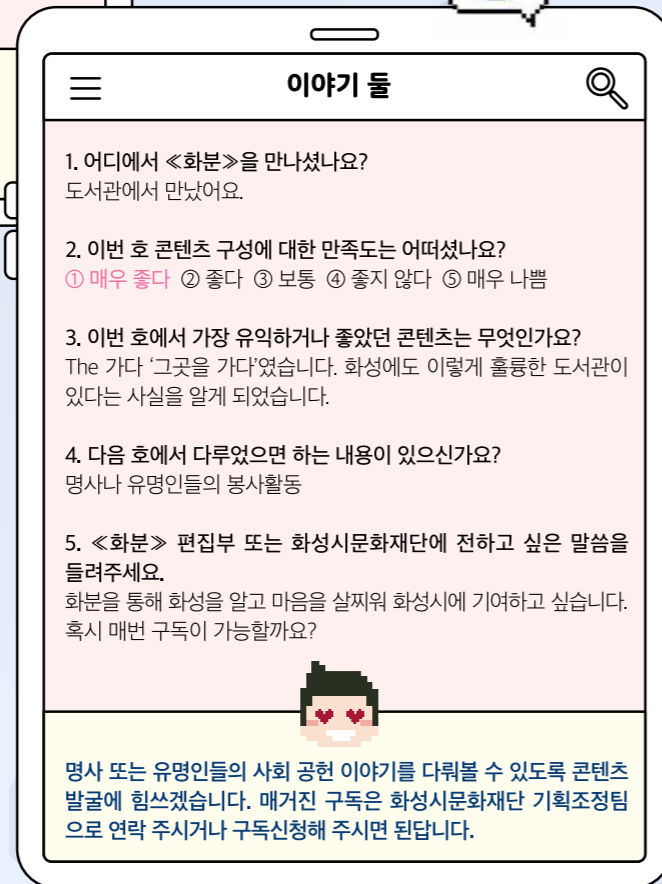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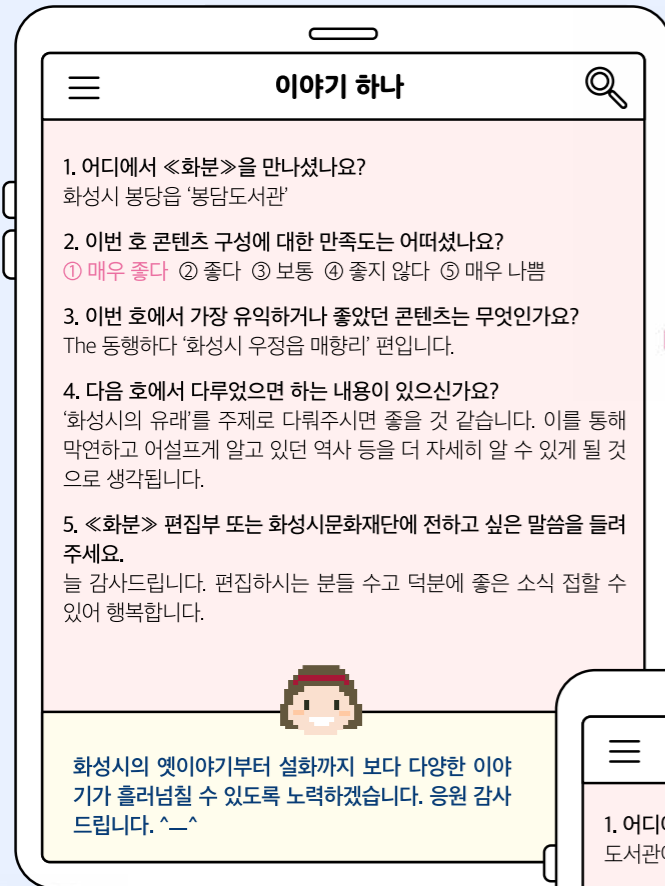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 기획전시 <빛의 숲>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 전시실 ● 가정의달 미디어전시 <가정의 팔레트 빛을 만나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아트스페이스, 아트스케이	2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 기획전시 <빛의 숲> 4, 5.(금)~5, 18.(토) 가정의달 미디어전시<가정의 팔레트 빛을 만나다> 4, 2~5, 19	3	4
5 ● 두들뎌 11:00 / 14:00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6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 기획전시 <빛의 숲> 4, 5.(금)~5, 18.(토) 가정의달 미디어전시<가정의 팔레트 빛을 만나다> 4, 2~5, 19	7	8	9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한옥카페 예술로 즐기기 전통 한모금> 비봉면 화림원	10	11
12 ● 2024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현장견학 17:00~20:00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13	14	15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우당탕탕 바다를 찾아서> 18:00 온라인	16	17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안녕 칼처로드> 14:00 안성동 태안지구나상가 ● 반석산 피크닉: Musical in the Forest 17:00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18
19 가정의달 미디어전시 <가정의 팔레트 빛을 만나다> 4, 2~5, 19	20	21	22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우당탕탕 바다를 찾아서> 18:00 온라인	23	24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안녕 칼처로드> 14:00 안성동 태안지구나상가	25
26 ● 2024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현장견학 17:00~20:00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27	28	29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일몰 콘서트: 옥상으로 따라와> 19:30 봉담문화의집 옥상	30	31 ● 제14회 화성 빛놀이 축제 전국형	
						1 제14회 화성 빛놀이 축제 5, 31.(금)~6, 2.(일)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Vapor House Project> 17:00 우정읍 (구)버디햇집
2 제14회 화성 빛놀이 축제 5, 31.(금)~6, 2.(일)	3	4	5	6	7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안녕 칼처로드> 14:00 안성동 태안지구나상가 ● 반석산 피크닉: Indie Night 19:00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8
9	10	11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 풍당 풍화당> 18:00 남양읍 풍화당	12	13	14 ● 금요일N제즈: 아이비&조운상밴드 19:30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15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Vapor House Project> 17:00 우정읍 (구)버디햇집 ● 초등학생을 위한 실험실 콘서트 16:00 모두누리센터 누리아트홀

# 6 June

● 공연 ● 전시 ● 축제 ● 행사 ● 기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6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한옥카페 예술로 즐기기 전통 한모금> 비봉면 화림원	17	18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 풍당 풍화당> 18:00 남양읍 풍화당	19	20	21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안녕 칼처로드> 14:00 안성동 태안지구나상가	22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안녕 칼처로드> 14:00 안성동 태안지구나상가
23	24	25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문화 풍당 풍화당> 18:00 남양읍 풍화당	26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일몰 콘서트: 옥상으로 따라와> 19:00 봉담문화의집 옥상	27	28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네오 노마디즘> 2동탄 시화작가업 유희공간 ● 2024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19:30 우정읍 (구)버디햇집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한옥카페 예술로 즐기기 전통 한모금> 굿커미시그너처	29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Vapor House Project> 17:00 우정읍 (구)버디햇집 ● 대한민국의발예축제 스페셜 발레 갈라 in 화성 17:00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30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네오 노마디즘> 6, 28.(토)~7, 13.(토)						
7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네오 노마디즘> 6, 28.(토)~7, 13.(토)	1	2	3	4	5	6
14	15	16	17	18	19	20
21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한옥카페 예술로 즐기기 전통 한모금> 굿커미시그너처	22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한옥카페 예술로 즐기기 전통 한모금> 굿커미시그너처	23	24	25	26	27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안녕 칼처로드> 14:00 안성동 태안지구나상가
28	29	30	31 ● 가정 예술활동 지원사업 <일몰 콘서트: 옥상으로 따라와> 19:00 봉담문화의집 옥상			

#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 2024 화성문화재단 화분 독자 만족도 조사

<<화분>>에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독자와 함께하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겨주신 모든 의견을 취합 후 분석하여 앞으로 제작되는 <<화분>> 기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늘 독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장하는 <<화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  
**설문기간** 2024년 5월 6일~2024년 7월 10일  
**설문내용** 콘텐츠 내용, 디자인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당첨발표** 2024년 7월 말 (당첨자 개별 연락)

※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드릴 예정입니다.  
 ※ 설문 제출 시 정확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화성시문화재단  
독자만족도 조사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화성시문화재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4회  
**화성**  
**태블릿**  
**추경제**

5. 31. (목) ~ 6. 2. (일)  
 화성시 전곡항



나만의 상상력으로 색을 채운 후 6월 20일까지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기재 필수) 보내실 곳 : [hcfarm@naver.com](mailto:hcfarm@naver.com)

어느 카페 - 서종미

화성에 있는 명소를 마음에 드는 색으로 채워 마음에 여유를 갖는건 어떨까요?  
 완성된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화  
분  
이  
는  
재  
생  
능  
력  
을  
배  
양  
하  
여  
민  
간  
의  
친  
환  
보  
호  
지  
를  
사  
용  
하  
는  
다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화분

